
2000年度行政事務監査 文教保社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女性政策官

日時 2000年6月21日(水) 午後4時

場所 文教保社委員會會議室

(16時 21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英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제36조, 同法施行令 제16조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2000년도 女性政策官所管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위원님들, 오늘 3개 부서를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력안배를 적절히 하셔서 남아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도 효율적으로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女性政策官 關係公務員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女性政策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地方自治法 제36조 및 同法施行令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盧美惠 女性政策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宣 誓)

○委員長 李英順; 앉아주시기 마라고요.

다음은 盧美惠 女性政策官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존경하는 서울特別市議會 문교보사위원회 李英順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탁월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등을 통하여 저희 女性政策官 所屬 전 직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2000년 6월 1일자로 女性開發擔當官室 팀을 일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幹部를 소개하겠습니다.

(幹部紹介:女性開發擔當官 文洪善, 南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金龍求, 政策企劃팀장 金允圭, 能力開發팀장 朱容台, 團體支援팀장 金善石, 家族福祉팀장 金泰均, 保育팀장 鄭正順, 兒童福祉팀장 宋星憲, 女性福祉팀장 李基英)

女性政策官所管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女性政策官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지금까지 女性政策官所管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저희 직원들은 깊이 명심하여 하반기에는 여성정책분
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운영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
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
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劉俊相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劉俊相 委員; 保育팀장 나오셨지요?

○保育팀장 鄭正順; 네.

○劉俊相 委員; 발언대로 나오시고, 성함 좀 얘기하시고요.

○保育팀장 鄭正順; 保育팀장 鄭正順입니다.

○劉俊相 委員; 서울시내 민간보육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保育팀장 鄭正順; 3,184개입니다.

○劉俊相 委員; 거기에 장애아반이 있고 영아전담반이 있고
그렇지요?

- 保育팀장 鄭正順; 네.
- 劉俊相 委員; 장애아반은 몇 반정도 있습니까?
- 保育팀장 鄭正順; 장애아시설이 33개가 있습니다.
- 劉俊相 委員; 33개소에서 1개 반씩 설치하고 있다 이거지요? 3,184개에서 33개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반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까?
- 保育팀장 鄭正順; 아니지요. 반 개념이 아니고 시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劉俊相 委員;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에.....
- 保育팀장 鄭正順; 민간보육시설은 장애아 전담시설이 5개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3개는 국·공립을 포함한 것입니다.
- 劉俊相 委員; 민간 내가 물어봤잖아요, 국·공립 빼놓고?
- 保育팀장 鄭正順; 민간은 5개입니다.
- 劉俊相 委員; 그 다음에 영아반은 몇 개나 있습니까?
- 保育팀장 鄭正順; 영아 전담시설로 지정 받은 곳은 없습니다. 영아를 보육을 하고 있긴 한데.....
- 劉俊相 委員; 그러니까 장애아반 뿐이 없다 이거지요?
- 保育팀장 鄭正順; 네.
- 劉俊相 委員; 5개 반에서 작년에 1개소의 지원규모가 자료에 보면, 40만원씩이라고 돼 있는데 40만원씩 매월 지원이 됐습니까?
- 保育팀장 鄭正順; 區에서는 한번에 지원을 해 주고요.
- 劉俊相 委員; 매년?
- 保育팀장 鄭正順; 네, 연간 40만원입니다, 교재교구비가.
이것은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을 포함해서 민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劉俊相 委員; 40만원이 5개소에 지원이 됐다 이거지요, 작년엔?

○保育팀장 鄭正順; 그것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가지 꼭 주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劉俊相 委員;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保育條例 만든 것 기억나시지요?

○保育팀장 鄭正順; 네.

○劉俊相 委員; 그 조례가 만든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지요?

○保育팀장 鄭正順; 네.

○劉俊相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 말고도 3,184개소에서 교재교구비를 신청한 있지요? 서울시 우리 팀장님한테 신청이 옵니까, 자치구에서?

○保育팀장 鄭正順; 그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신청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 계획된 물량을 구에다 균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시설에다 하는 것은 각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劉俊相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대문구같은 데는 73개소가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育팀장 鄭正順; 99년까지는 개소당 40만원 기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체 시설을 각 구청별로 균분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劉俊相 委員; 지금 교재교구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保育팀장 鄭正順; 교재교구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劉俊相 委員; 3,184개소에 40만원씩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保育팀장 鄭正順; 그것은 아니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비가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劉俊相 委員; 그러면 동대문구는 13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전혀 못 썼죠?

○保育팀장 鄭正順; 못썼습니다.

○劉俊相 委員; 그 이유가 뭐니까?

○保育팀장 鄭正順; 작년에 13개소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민간 보육시설이 동대문구에는 7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내려온 비율로 해서 13개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담당자가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바뀐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劉俊相 委員; 다른 자치구에는 어떻게 했어요?

○保育팀장 鄭正順; 다른 자치구는 전부 집행했습니다.

○劉俊相 委員; 전액 지급이 됐어요?

○保育팀장 鄭正順; 네.

○劉俊相 委員; 동대문구에서 안 된 이유는 뭐니까, 행정 미숙해서 그랬어요?

○保育팀장 鄭正順;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담당자의 사유서를 받은 것을 제가 劉俊相委員님께 미리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매년 프로그램비가 8만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교재교구비는 동대문 같은 경우에 73개소 중에 13개소만 줄 수 있도록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劉俊相 委員; 그런데 동대문구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73개소인데 구비, 시비, 국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 개소당 40만원이죠?

○保育팀장 鄭正順; 그렇죠, 자부담 20%까지 포함한 금액이 40만원입니다.

○劉俊相 委員; 여기 13개소에서 247만원은 시비만 얘기하는 것이죠?

○保育팀장 鄭正順; 국·시비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劉俊相 委員; 국비하고 시비 포함된 것이에요?

○保育팀장 鄭正順;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劉俊相 委員; 그래서 일선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보육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예산까지 시에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 금방 말씀하신 것이 매월 40만원이죠?

○保育팀장 鄭正順; 아니죠, 연간 40만원입니다.

○劉俊相 委員; 그런데 여기는 매월 교부라고 해 봤어요? 매월 교부예산액이 13개소에 247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保育팀장 鄭正順; 그 말씀은 저희가 각 구청에 보육사 운영비를 배정할 때 이 금액을 월별로 균분해서 배정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247만원을 한번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매월운영비 지원에 포함해서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劉俊相 委員; 연 예산이 247만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교부를 해 준다 그 뜻이죠?

○保育팀장 鄭正順; 네.

○劉俊相 委員;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년에 예

산 안 된 것이 이월돼 있을 것 아니에요?

○保育팀장 鄭正順; 아니죠, 작년 예산은 이미 불용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월에 저희가 교재교구비 국고보조 추가확보된 것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각 구에 전체 금액을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劉俊相 委員; 유일하게 동대문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保育팀장 鄭正順; 동대문만 그렇습니다.

○劉俊相 委員; 담당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保育팀장 鄭正順; 다른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집행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劉俊相 委員; 지금 이것 때문에 사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어요. 자치구에 돈이 내려와 있는데 실제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전용해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것을 금년에는 명확하게 해서 어린이집에 지침이랄지 이런 것을 내려보내서 사실 이러 이러했는데,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조례도 만들고 민간시설에 이제까지 한 번도 지원이 안 되다가 조그만 금액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도움받고 또 조례 중에서 유일하게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인데,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불용액까지 떨어져서 어떤 사태가 빚어졌는데 금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그러면 금년 2000년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써 2000년 6월 말이 지나가는데.

○保育팀장 鄭正順; 금년 추경에 올린 금액이 약 7억 6,000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바로 각 구에 기준을 세워
공문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劉俊相 委員; 추경에요, 작년예산에 배정 안 됐었어요?

○保育팀장 鄭正順;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국비가 309개소를 줄 수 있는
분량만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保健福祉部에서
1,694개소를 줄 수 있는 금액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
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劉俊相 委員; 추가 내시한 것만 그렇고, 1월부터 6월까지
합해서.....

○保育팀장 鄭正順; 그것 합해서 8억.

○劉俊相 委員; 그전 예산은 그전에 잡혀 있었죠?

○保育팀장 鄭正順;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균분을 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각 구에 기준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劉俊相 委員;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구에 명확히 얘기해서 예산이 배정
된 것은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했습니다.

金成奎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成奎 委員; 金成奎委員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와 설치비, 인건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보센터가 금년 3월 1일 개원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그렇습니다.

○金成奎 委員; 개원할 당시에 아니, 개원을 하기 전에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애초부터 아예 국고보조금은 생각도 안 하고 서울시비로 다 해서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 계획 세워서 개원했던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닙니다.

○金成奎 委員;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몇 % 받아서 하게 돼 있죠? 15% 받는 것 아니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광역시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제외가 됐습니다.

○金成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외가 된 이유를, 그러니까 법령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이 사업은 몇 %를 받게 돼 있냐고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15%를 받게 돼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15%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신청을 했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했습니다.

○金成奎 委員; 이것이 허위문서는 아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오고가는 공문을 저희가.....

○金成奎 委員; 아니,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법령에 규정이 딱 돼 있는데 이렇게 0원으로 나오니까?

국고보조금 하나도 안 내려준 이유가 뭐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서울시는 제외 이렇게 되어서 안 준 것입니다.

○金成奎 委員; 서울시는 제외 그것이 뭐니까? 保健福祉部長

官이 長官의 임의대로 서울시는 제외 그런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保健福祉部의 지침에 의해서 다른 5개 광역시는 지원이 되는데 서울시는 제외로 돼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福祉部에서 서울시로 확정통보서 보낸 것 보면, 여기에는 서울시는 제외 이렇게는 없습니다. 따로붙임란에 서울시는 제로로 돼 있던 말이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침을 받은 것으로 실무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낸 부분에, 2000년 예산 사업란에서 나온 부분은 수치만 나와 있는 것이고 별도의 조치는 서울시는 제외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왜 제외시켰답니까, 이유가 뭐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이것 뿐이 아니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이 사업에 왜 서울시가 제외됐다는 것입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이 충분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라는 쪽의, 안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金成奎 委員; 서울시 예산이 충분합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닌데도 불구하고 福祉部에서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지금 제가 후속질문할 텐데요 정책관님, 서울시 예산이 충분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福祉部에서의 입장은 저희가 다양한 예산들이, 福祉部에서는 법정으로 주어야 될 부분을, 국비로 주어야 될 부분의 %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는 예산이 저희는 많습니다.

○金成奎 委員;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향후

이런 식으로 계속 福祉部에서 서울시는 제외 이렇게 나오면 무대응으로 나올 것입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계속 노력을 하면서.....

○金成奎 委員;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실무자들을 만나고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실무자를 접촉하고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보육정보센터 운영하는 데 금년 2000년도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총 어느 정도 소요되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운영비가 2,414만 3,000원이고 설치비가 2억 3,696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액은 2억 6,111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러니까 2억 6,111만 1,000원은 받지를 못해 왔으니까 우리 시비로 이것을 충당하고 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그렇습니다.

○金成奎 委員; 국비 못 받아 왔으니까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시비로 충당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 같은 데도 아주 더 시급한 사업에 예산부족이니 뭐니 뭐니 하면서 예산이 아주 미비하게 지원되거나 전혀 지원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은데 국고보조금 받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그런 사업들은 못하네요, 예산지원도 안 되고?

○女性政策官 盧美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물론 당연히 계속 노력은 해야 되는데 노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말입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공문을 보내고 실무자를 만나서 설득시키는 일, 왜 우리 시에는 돼 있는 부분 안 주느냐 하는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金成奎 委員;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사업비 국고보조금 받아오지도 못한다면 당초부터 계획세우고 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2억 6,000여 만원씩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답답합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위원님,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니까 운영을 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인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제가 다음 질문이 뭐냐면, 우리 정책관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룹홈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다고 현재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습니다.

○金成奎 委員; 4개소에 단기보호소가 있고 장기보호소가 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동복지쪽의 그룹홈 4개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한테.....

○金成奎 委員; 제가 아직 본질문에 안 들어갔는데 그 4개소 중에 운영비고 인건비고 일체 지원이 안 된 보호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재까지, 설치비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금년에 추가로 2개소가 지정된 곳은 설치비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4개소는 설치비나 운영비가 지금까지 일체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룹홈은 설치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럼 운영비는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운영비만 지원을, 4개소에 지금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개소당 1,200만원 수준이고 관리비가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은 국비 40%…….

○金成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종로구 그룹홈하고, 중구 그룹홈, 성북구 그룹홈, 강서구 그룹홈 네 군데입니다.

종로구 그룹홈은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중구 그룹홈은 사회복지법인 리라학원, 성북구 그룹홈하고 강서구 그룹홈 두 군데가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2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천주교 살레시오회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金成奎 委員; 이 4개소는 전부 다 장기보호소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장기입니다.

○金成奎 委員; 이외에 단기보호소들이 있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미인가 시설들인데 단기보호소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데가 저희 兒童福祉팀에서는 없습니다.

○金成奎 委員; 이것은 미인가 시설인데 거기가 단기보호소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지금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단기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나 관리비가 일체 지원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곳 혹시 가 보셨어요? 담당자라도 누가 그런 곳 가 보셨느냐고요?

○兒童福祉팀장 宋星憲; 兒童福祉팀장입니다.

신림동에 있는 미인가 쉼터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金成奎 委員; 혹시 선재의 집이라고 가 보셨어요?

○兒童福祉팀장 宋星憲; 그쪽은 못 가 봤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래서 이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 미인가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 운영비가 10월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도 있는데 당연히 받아다가, 2억 6,000여 만 원을 받아다가 정보센터 이런 것도 운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손 놓고 가만히 그냥, 이것은 직무태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가지고 못 받아와서, 그런 데에다가 보조를 해주어야 될 예산을 여기 정보센터에도 다 쏟아붓고 있던 말이에요. 그렇지요? 노력하십시오.

○女性政策官 盧美惠; 노력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아까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그룹홈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1개소에서 대략 몇 명 정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5명 내지 6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러면 총 현재 금년까지 2개 추가해서 6개 아납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金成奎 委員; 그러면 평균 5명 잡고 약 30명, 주로 보호소가 주거형태 아납니까,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女性政策官 盧美惠; 한 30평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주로 요보호아동들인데,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가정이나 부모가 잘못돼서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 아

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4개소를 운영했고, 금년에 2개 추가를 했다는데 그 아이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요보호아동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던데 이것 너무 소극적인 정책 아닙니까? 금년에 2개 추가해서 고작해야 30명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말씀드렸던 2개소를 늘리는 쪽은 아동복지쪽에서의 미인가시설이나, 또는 우리가 지원하는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가출청소년, 또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으로 선도·재활대책을 수립했을 때 10개의 미인가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이 그 때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미인가 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부터 미인가 시설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때에 여아들에 대한 지원은 그쪽에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아까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미인가 시설 두 군데를 가 봤다 그랬지요?

○兒童福祉팀장 宋星憲; 네.

○金成奎 委員; 서울시내 미인가 보호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兒童福祉팀장 宋星憲; 저번에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30여 군데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金成奎 委員; 그러면 그 30여 군데서 시비 지원요청이 들어온 곳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兒童福祉팀장 宋星憲;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여성 미인가 시설에서는 여섯 군데가 신고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미인가 시설들을 청소년 보호대책쪽을 통해서 가 봤는데요. 미인가 시설의 그룹홈이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신고를 받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쪽에 필요하다. 예산을 조금만 지원하면, 운영비와 종사자 1명 정도의 예산지원이면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쪽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成奎 委員; 보호아동들이 5명에서 6명이면 종사자 1명이면 충분하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의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20만원 내지 30만원이면 운영이 됩니다.

○金成奎 委員; 그런 것은 앞으로 좀 해 보세요. 추경에 반영 요구도 안 했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奎 委員;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구립 어린이집 말입니다. 해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논란이 되고 지적이 된 문제입니다만, 왜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민간시설들

이나 구립시설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金成奎 委員; 아니, 매년 교육을 시키고, 매년 가서 지도점검해서.....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런데 인력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제로베이스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金成奎 委員;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래서 저희가 집행도 그렇고 예산지원체제도 그렇고 해서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지금 정보센터의 소프트웨어를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이것이 한두 건씩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구립·민간 합쳐가지고 보조금 환수가 90건, 부당징수금 반환이 75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환수 사유를 보면 말이에요.

퇴소 아동 간식비 지급,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간식비 착오신청, 적발되니까 착오신청이라 그러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한번 더 환수 사유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區를 통해서 각 시설에.....

○金成奎 委員; 원장의 차량 취득세도 운영비로 지급해 버리고, 도대체 왜 이래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지도점검을 말입니다. 自治區에다가 100%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 女性政策官 盧美惠; 區廳長이 하고 있습니다.
- 金成奎 委員; 市에서는 전혀 지도점검을.....
-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保育팀에 5명이 있는데요. 지금 4,040여 개의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도저히 저희는 불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 金成奎 委員; 그런데 區廳長 책임하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보센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동 수나, 또 교사 수 그것이 다 정보프로그램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또 보육료 들어온 것이며, 지급한 것이며, 이것을 다시 새로운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원체제가 지금 보육시설로 나가는 게 19개의 다른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成奎 委員; 그리고 위탁체의 시설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원장의 차량 취득세를 운영비로 지급해 버리는 이런 위탁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하세요. 과감하게 교체를 하셔야 한다니깐요.
- 女性政策官 盧美惠; 교체도 사실은 區廳長의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 金成奎 委員; 그러니까 區廳長 책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냥 팔짱 끼고 보고만 있습니까?
- 女性政策官 盧美惠; 사례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환기시키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또 서류를 보내는, 양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政策官님, 각 지역에 가면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소시키려고 상당히 경쟁적입니다. 경쟁적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매년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참 참담하네요.

아무튼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區廳長 책임이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나갑니다, 조사는.

○金成奎 委員; 나가서 뭘 어떻게 해 주고 와요, 區廳長 책임하인데? 조사만 나가서 보고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崔明玉 委員; 사전적인 예방을 하셔야지 불나서 다 타버렸는데 나가시면 뭐 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4,044개를 다섯 사람이 지금 예산지원하고, 계속 지도감독 하는 지침 내려보내는 것만 해도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崔明玉 委員; 현상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제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하나는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체제나 구립시설의 운영체제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하는 쪽으로, 양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러면 아직 금년은 결과가 안 나왔네요, 현재 자체감사 실시중이니까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습니다.

○金成奎 委員; 2000년 금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금년 이후에는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도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이런 비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초교육단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러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하셨습니다.

崔明玉委員님.

○崔明玉 委員;崔明玉委員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아동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女性政策官室에서 하시는 일이 별로 하시는 일이 없는데요,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에 내려 주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없구만요, 무슨 일을 해요?

그리고 지도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효율성과 효과성과 매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에 다 위임한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한 예산을 각 구에 배정을 했으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 예산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도 점검을 해 보고 평가도 해 보고 이래 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환수한 것 뿐. 그것도 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해서 지도·감사결과를 지적사항 그리고 처리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225에서 226까지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 있는지. 227페이지 보시면 지도·감사 결과 그랬죠? 제가 뭐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도·감사 결과를 지적사항도 알려주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은 9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몇 개 설치됐고, 99년도에 추가로 설치되면서 지금 3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자치구별로 자체 감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아직 보고를 드릴.....

○崔明玉 委員; 98년도부터 실시했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97년도에 몇 개하고 98년도부터 확대하는 계획을 저희가.....

○崔明玉 委員; 그러면 97, 98, 99,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던 말이에요, 이제 처음 지도·감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죠, 구립 보육시설이나 민간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내부에 설치가 돼 있는 경우에는 구립시설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은 되고,

○崔明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지도·감사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왜 여기다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실태과약을 위해서 감사차원이 아니고 운영프로그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를 나갔었습니다.

초등학교 잘 하는 데, 못 하는 데 또 사회복지시설, 구립시설 다 나가서 그 문제점을 보고 활성화방안을 저희가 마련한 거였습니다, 작년도.

○崔明玉 委員; 그런 것들도 여기다 명시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女性政策官 盧美惠; 여기서 감사결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현 실태과약이니까 충분히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崔明玉 委員; 좋아요, 그러면 227페이지 보면 방법 및 실시에서 보면 각 자치구별로 연 2회 실시하도록 돼 있죠? 그 결과라도 첨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崔明玉 委員; 이 자료 작성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연 2회씩 하도록 돼있는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보육시설을 할 때 같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崔明玉 委員; 그래도 여기에 별도로 나와 있어야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 자료는 뽑아서 별도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렇죠, 금년내로 주시면 되겠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난번에 한 것에서 방과후쪽에 문제가 된 부분을.....

○崔明玉 委員;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만 동료위원 것인데 177페이지 보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林浩植委員님께서 요청을 했어요.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실태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조성경위,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 이렇게 돼 있죠, 한 장 넘겨보세요. 178페이지. 이것이 현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해요? 69개 단체 116개 사업, 61개 단체 100개 사업, 34개 단체 44개 사업.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앞 부분에서 충분히 자료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앞 자료 해서.....

○崔明玉 委員; 그러면 첨언을 해야지 거기다가, 몇 페이지에 같은 자료가.....

○女性政策官 盧美惠; 184쪽에.....

○崔明玉 委員; 그러면 여기다 첨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女性政策官 盧美惠; 184쪽부터 이백 몇쪽까지 죽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崔明玉 委員;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알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요청에 들어가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아, 이분들이 무엇을 알고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구나, 그 자체가 자세히

과약이 안 되면 해당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준비하는 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한다든지 준비해 드리겠다든지 준비해서 갖다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내용을 여기다 띄워놓고, 그리고 그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이것은 둘 중 하나예요. 고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는 분들이 이해력이 부족하다든지.

○女性政策官 盧美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83쪽에서부터 218쪽까지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것은 제 자료가 아니라 우리 林浩植 선배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고 무엇을 판단하라고 그렇게 자료를,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간단 요약 하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보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소, 그 자료를 가지고는 아무 것도 과약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와 동일한 자료가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첨언을 해 놔야지.

○女性政策官 盧美惠; 죄송합니다.

○崔明玉 委員; 이제 제가 요청했던 자료 228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참고로 해서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별 후원금제도에 대해서 몇 말씀 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가 이 자료를 즉 분석해 보니까 현재 소년소녀가장의 자치구별 분포를 보면, 최하 5세대에서 최대 115세대로 구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23세대 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재정여건이 좋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보는 송파, 중구는 5세대, 그리고 도심의 중추적 상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영등포나 동대문은 평균한 9세대 정도,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 가장 좋다고 하는 서초, 강남도 역시 평균 내보니까 평균치에 미달하는 16, 18세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강서가 115세대, 노원이 67세대, 관악이 48세대, 중랑이 25세대로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재정적으로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치구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년소녀에 대한 후원금은 기탁자가 시청 또는 구청에 지정 또는 비지정 기탁하는 경우와 연간 정기적, 비정기적 후원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죠, 지금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기탁하는 경우에는 한국복지재단을 통하여 각 자치구의 세대 분포비율에 따라 편중되지 않게 사실상 바람직스럽게 지원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99년도에는 보니까 803명에게 약 6억 3,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시 기탁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자치구에 기탁해 오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할구역 내 소년소녀가장과 직접 연결을 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내역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파악이 안 될 텐데?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탁금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崔明玉 委員;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女性政策官室에서 하

고 있는 사업과 연계돼 있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 바 아니다, 나는 모르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 안 돼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제가 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래서 말이에요 세 가지만 물어봅시다.

세대수가 적고 비교적 여건이 나은 자치구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그렇지 않은 자치구보다 후원자 수나 지원 횟수나 그 다음에 지원액이 현저하게 많아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편중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소년소녀가장의 예산은 국비,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구비는 가지가 않습니다. 그것하고 전액 시비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崔明玉 委員; 그 문제는 국비, 시비보다 후원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女性政策官 盧美惠; 후원금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저는 전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崔明玉 委員;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후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崔明玉 委員; 특히 연말연시, 명절 때 일부 자치구에만 후원자가 집중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남, 서초. 그런데 그런 데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아주 적은 데 아깝니까, 돈은 많고요.

그래서 후원자도 자기가 살고 있는, 후원자들이 대개 내용을 보니까 후원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구 세대를 지원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그분들이 낸 돈을 중랑구나 노원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말이지요. 후원금 자체를 다른 취약 自治區쪽에 분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강서 같은 데 노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정말 너무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후원금 지원이 전혀 안 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지요.

분산하는 후원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서 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쪽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지만 소년소녀가장 추천을 해 달라는 각 재단에서의 추천이 있거든요.

그럴 때 취약한 區에 우리가 웨이트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있거든요. 232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의 통계, 또 231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분포도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女性政策官 盧美惠; 재정기반이 취약한 區를 특히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추천을 하겠습니다.

○崔明玉 委員; 부족한 쪽은 이쪽에서 좀 지원을 하더라

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江南·瑞草區쪽의 예인데 한 세대에 과도하게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요. 자립정신이 결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의타심이 생기고, 놀랍게도 사행심을 조장할 수도 있다, 불건전한 소비성향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없어요, 江南區나 瑞草區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崔明玉 委員;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그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돼요. 어떤 때 보면, 그럴 리가 없지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적당히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女性政策官 盧美惠;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崔明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李禮子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禮子 委員; 李禮子입니다.

우리 崔明玉委員님이 자료와 연결돼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여성발전기금을 받은 기관들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라는 말까지 붙여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165쪽으로 가시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정상 추진예정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다 정상 추진.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다 정상 추진예정이겠지요, 그냥 일괄해서 다.

그래서 저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기관들이 어떻게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정상 추진, 다 정상 추진이겠지요. 이 다섯 글자 정상 추진중을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겠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에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돈이 4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나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는 주나마나예요. 그래서 뭐를 알고 싶어해서 자료를 요청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자료제출을 하셔야지 너무 안일한 자료제출 아니에요, 정상 추진중?

모든 단체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딱 올라와 버리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만 모니터링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좀 충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받는 사람 황당스럽게 이런 자료를 주시지 말구요.

일단 제가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 좀더

여쭙어 보겠는데요.

162페이지, 여성장애인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향후 방지대책을 물어봤고, 또 170페이지에 가면 여성장애인 복지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좋은 말씀들을 많이 쓰셨어요.

향후 방지대책,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도 굉장히 좋은 안을 많이 내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전혀 구체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든가, 또 예산편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 아마 이 사업을 하시려나보다 우리가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지, 여기 죽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을 하셨는데 다 보기도 좋고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말만 늘어놓는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잊어버려서 안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신경 써서 누군가 또 다시 재촉하면 똑같은 대답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일단의 여성그룹이 다른 여성과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너무 처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균형으로 올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런 식의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식의 답변이 여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保健福祉局이고, 또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는 여성장애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정 공모사업 중에 하나를, 세 과제 중에 하나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조그룹을 형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5,000만원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것은 저도 알고 있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李禮子 委員; 그것은 알고 있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또 추진실태를 말씀드린 부분으로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도 무료로 수화로 배우는 빵과자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李禮子 委員; 제가 하시는 것 다 보고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드리는 요점은 이런 식의 뭐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실 때는 좀 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안까지 같이 포함해서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추진방향을 저희가 나열을 했고, 이 사안들이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올라가지요.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열심히 밀어주시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장애인쉼터, 작년에 障礙人福祉課에서 하나 넣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래서 넣어서 들어갔지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못 받는 부분도 市에서 할 수 있게끔 예결위에서 지원해 주시면 그것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李禮子 委員; 그것 障礙人福祉課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課長님이. 그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원도 지급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것은 아니고요. 노력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나열한 부분은 다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2001년에 장애여성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동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李禮子 委員; 여기 이렇게 안을 내신 것 내용은 굉장히 제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썄, 이렇게 그냥 좋은 말만 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갖고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제가 그 말씀을.....

○女性政策官 盧美惠; 미인가 컴퓨터를 우리가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다면 여성장애인 미인가 컴퓨터도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李禮子 委員; 성폭력에 대한 향후대책하고, 또 복지문제에 대한 향후대책하고 이 두 가지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1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주관사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주실 때는 이런 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李禮子 委員; 171쪽이요.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단체명하고, 단체주소하고, 책임자나 운영자 이름, 연락처 이런 것을 다 함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이것은 障礙人福祉課에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李禮子 委員;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원하시면 그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드릴 수도 있고 障礙人福祉課에서 직접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상세한 내용을 李禮子委員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갔다 하지 않고 그냥 직접 드리도록.

○李禮子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체명이라든가, 책임자라든가, 주소 이런 것 다 합해서 그렇게 좀 주시고요.

276쪽에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한 달에 얼마씩 받고 1년에 얼마씩 받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암이라든가, 아주 돈이 많이 들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의료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이것은 그냥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국립의료원에서 18세까지는 무료진료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을 입양하는 가정들을 몇 가지 제가 그냥 들은 바로

는 상당히 부유한 쪽에서 입양을 해서 수당도 안 받는 가정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래도 보통 때에는 괜찮지만 이런 중한 병에
걸릴 때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국가정책으로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러면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는 것이네
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못 되고 건의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
부에.

○李禮子 委員; 우리쪽에서 건의하는 것인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 兒童福祉팀에서, 장애아동 입양도
저희 소관이니까요.

○李禮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우
리가 저소득 여성에 관한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냥 드는 느낌은 IMF가 오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고, 또 통계를 보니까 여성노
동자의 한 70%가 일용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노동운동을 30년쯤 해 왔는데 이 IMF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이 한 10년 전으로 후퇴를 했다 이런 통
계를 제가 보면서, 또 우리 프로그램하고 연결 지어서 보면서
그런 층의 여성들을 위한 것은 우리 사업 중에 저는 너무 많
이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기에 어떤 입장인가 그런 말
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불완전고용
이나 여성실업 쪽의 대책을 女性政策官室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취약합니다.

○李禮子 委員; 그래서 향후에 무슨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여성문제의 가장 핵심은 여성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여성정책 관련분야에서 모두 다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후반부부터 여성실업문제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李禮子 委員; 올해 후반부부터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자료수집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장애인프로그램을 하는 여성장애인 쪽의 자료가 저희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아동복지팀에 세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의 아동팀이 지원하고 프로그램 보고하는데, 지방에 있는 11개 시설도 저희가 후반부에 두 번씩 가봐요 됩니다. 이렇게 업무가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많이 주시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李禮子委員님은 여성장애인쪽 자료가 많으신 부분 저희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세요.

○李禮子 委員; 저도 많지 않은데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왜요, 그래도 협회니 뭐니해서 자료가 많으시니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李禮子 委員;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후반기에 하시겠다는 실업의 문제 또 좋은 안을 내신 것도 실시하시는 문제 그런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李東秦委員님.

○李東秦 委員; 李東秦委員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내용 중 나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과정에서도 언급된 문제입니다만 국비지원 비율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保健福祉部 지침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지원비율이라는 것이?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원비율은 아마 법적비율일 거예요.

○李東秦 委員;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保健福祉部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특히 타 부처보다 복지파트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保健福祉部의 지침사항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입장이 난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안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女性政策官 盧美惠; 법령으로 돼 있으면서도 지침으로 제외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법령이니까.

○李東秦 委員; 아니잖아요, 지침이 법령에 우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맞습니다.

○李東秦 委員;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물론 女性政策官室 内の 문제만은 아니고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이런 국비 지원 비율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한 전반적 대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女性政策官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국비 50%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시비 50%, 50 대 50이라고 했을 때 국비 50% 내려왔는데 시비를 30%만 배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거꾸로 견딜 수가 없죠?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가 정책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 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표준보육단가 산출과 보육시설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표준보육단가 산정의 누가 하죠, 서울시의 표준보육단가는 서울시에서 산정합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서울시 표준보육단가는 이제까지는 福祉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福祉部에서 내려 온 것 10여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적용하면서부터는 표준보육단가를 각 시·도의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전반적인 보육단가 뿐만이 아니라 보육과 관련한 재정지원쪽 제반의 문제를 검토하고 자.....

○李東秦 委員;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보육시설 재정지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죠? 保健福祉部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겠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침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하고, 그러

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까지 저희가 하게 됩니다.

○李東秦 委員; 이것은 여기에서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바로 서울시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건의를 하는 부분이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과제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2개가 중부, 북부의 경우는 계약직으로 돼 있고 서부가 위탁입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李東秦 委員; 제가 간단 간단하게 우선 해당 소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중부 소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中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鄭惠善; 中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鄭惠善입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얼마나 되셨죠, 소장 말씀인지?

○中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鄭惠善; 이제 1년 돼오죠,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시다.

○李東秦 委員; 1년 가까이 되네요.

그동안에 죽 해 오시면서 이전에 진행돼 왔던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뭔가 중부에서 새로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中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鄭惠善; 저희가 우선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중의 하나가 교육내용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기술

교육이나 생활문화교실에.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주로 컴퓨터쪽으로 강화를 해서 컴퓨터과, 정비사과, 웹디자인과, 인터넷정보검색사과 이런 쪽으로 했고요.

생활문화교육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생활과 의식에 관련된 과목들 생활법률, 여성리더쉽 향상교육, 부모역할교육, 소자본 창업, 자동차 정비 등등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李東秦 委員; 프로그램을 일일이 나열하실 필요는 없고요. 1년 가까이 운영을 해 오면서 그전에 비해서 이용률이라고 그럴까 여성들의 여성발전센터 이용률이 제고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전에 비해서?

○中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鄭惠善; 일단 제가 전년대비 저희 수강생 비율로 본다면 기술교육의 경우는 100% 조금 더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문화교육에는 작년도에 600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600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또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실 이외에 여러 가지 여성영화교실이라든지 그 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이용자수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냐고요?

○中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鄭惠善; 이용자수가 단적으로 생활문화교실의 경우 전년도에 저희가 한 기에 55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용자층도 달라졌습니까,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라서?

○中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鄭惠善; 그것은 사실 프로그램 자체

가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역할교육이나 리더십 향상교육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층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신다는 그 자체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명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李東秦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여성발전센터에서 보니까 무슨 통일교육 관련한 프로그램 내지는 뭐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中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鄭惠善; 남부여성센터입니다.

○李東秦 委員; 남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南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金龍求; 南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金龍求입니다.

○李東秦 委員; 여성주간행사 추진계획 중에 남부에서 7월 4일 북한여성 바로 알기 강연회를 하기로 했는데 누가 강연자로 나오니까?

○南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金龍求; 95년에 귀순한 조연지 강사입니다.

○李東秦 委員;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미리 짐작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 변화 내지는 변화의 폭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공강연회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겨요. 북한여성 바로 알기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접근방식에 따라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강연자에 따라서 는 지금의 남북관계 분위기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강연내용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5회 여성주간 행사의 주요행사로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더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됐습니다.

○南部女性發展센터 所長 金龍求; 알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리고 종교부설설치비 지원시설 용어가 복잡합니다만, 종교부설 보육시설이겠죠, 우리가 지원하는.

이 시설의 인건비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과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서울시 역시도 차등해서 수년동안 지급돼 온 사실이 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李東秦 委員; 이것이 90% 내지 50% 이렇게 되나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45%하고 90%.

○李東秦 委員; 이렇게 차등지원이 됐는데 물론 서울시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차등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시·도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女性政策官 盧美惠; 16개 시·도 중에서 45%만 지급한 시·도가 대구, 대전, 강원, 전남입니다. 그리고 90%만 지급한 데가 울산하고 전북이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45%와 90%를

섞어서 지급했습니다.

○李東秦 委員;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래도 섞여서 나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차라리 90%로 동일하게 주거나 아니면 45%로 동일하게 기준을 맞춰서 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그리고 保健福祉部 그리고 구비 이렇게 지원비율을 나눠서 지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도 결과를 보고 사실은 놀랐습니다만 저희 책임이죠.

○李東秦 委員; 물론 이전부터 진행돼 온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과연 종교시설에 국한된 것인지?

워낙 소규모의 시설들이 많고, 또 복잡한 지원기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계기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정보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프로그램속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결국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區廳別로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전혀 검토 없이 서울시는 종합해 가지고 保健福祉部에 신청하고 이런 결과 아십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게 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렇게 된 것이지요, 사실은?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李東秦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비단 이 종교시설만의 문제겠느냐, 예산지원하는 것들이?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아홉 가지 지원쪽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후반부에.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의 운영실태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아무튼 정보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지급하는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류가 나오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어느 조건일 때는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래서 이것은 保健福祉部에서 어떻게 처리를 한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90%로 해 가지고 수년 동안 과다지급해 온 市·道가 있고, 45%로 지급한 데가 있고, 혼합해서 지급한 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한 거예요, 保健福祉部에서?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나간 것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90%를 지급하고, 최대 3명까지 지원하고, 소요 현원의 1/2, 그러니까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별 보수의 90%.

○李東秦 委員; 지원액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맞습니다.

○李東秦 委員; 아까 열아홉 개 기준을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女性政策官 盧美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자료도 보면 엉망이에요, 사실은. 하나 하나 뜯어보면 엉망이고 맞지 않는 게 많은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이 자료문제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년도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3개년이 상당히 비교가 될 정도로 개선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市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에 신청을 하고, 또 다른 여성단체가 다른 기금에 신청하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이면서도 문예단체, 이런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도 신청하고 여성발전기금도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단체가, 李禮子委員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도 신청하고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기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문예진흥과 관련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탈락이 됐는데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쪽에 와서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한국여성문예원 같은 경우 여성백일장을 열겠다 이렇게 해서 육백 얼마를 탄 것으로 돼 있어요.

문예진흥기금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계간지인지 뭔지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어요, 동호인 책자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타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성문인들의 글을 받아서 책자를 만드는게 아니라 여성백일장을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 책자로 만드는,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확인해야 될 문제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과 관계에서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는 것은 걸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한 단체를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화 여성작가회, 이런 것들도 문예진흥적 성격과 여성단체라고 하는 성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같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女性政策官室에서 이것을 사전에 탈락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설정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林浩植 委員; 제외시키지 않았나요, 그 때 문제가 됐었는데?

○女性政策官 盧美惠; 논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세 사람이상이 60점 이하를 주든가, 또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탈락이 되는데 그 경우는 2개의 경우가 다 아니었습니다, 60점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위원들 세 사람이 60점 이하를 주면 자동탈락

인데 그 케이스도 아니어서 거의 하위권에서 지원이 됐습
니다.

○李東秦 委員;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英順 委員長, 金星煥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星煥; 수고하셨습니다.

○李禮子 委員;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委員長代理 金星煥; 李禮子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李禮子 委員; 李東秦委員님이 한 단체가 양쪽에 걸쳐서 기
금을 타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DPI라는 단체에서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장애인복지기금에도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측 여성특별위원회 거기에서 또 탔어
요, 이 단체가. 여성쪽으로 해서 또 탄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문제삼고 싶지 않은 것이.....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도 문제를 안 삼습니다. 사업에 대
해서만 저희는 지원을 합니다.

○李禮子 委員; 그것이 사업별로 하니까 한 단체가 저는 특성
에 따라서.....

○女性政策官 盧美惠;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禮子 委員; 저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女性政策官 盧美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았으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李禮子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
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것은 우리 李禮子委員님과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말입니다. 한 단체에서 2개 기금을 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李東秦 委員;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한 사업을 가지고 중복해서 타는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업의 유사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설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星煥; 다음 羅鍾文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羅鍾文 委員; 羅鍾文委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확인 겸 해서 하겠습니다.

2000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 중에서 사업의 결과가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고 계시며, 또 소외 여성의 복지증진이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신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사업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사업을 죽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남녀평등하고, 소외여성의 복지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쪽을 말씀하셨지요? 삶의 질 향상쪽은 생활문화교육이나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하는 쪽이면 예로서 하나가 될 것이고요.

○羅鍾文 委員; 그와 관련된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업무보고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개별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성정보화 촉진사업이 10개 사업이고요.

남녀평등의 촉진사업이 8개, 구체적인 사업명을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총괄적인 자료입니다.

○羅鍾文 委員;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최소한 政策官님께서는 그와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것쯤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을 총 책임지고 계신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政策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으로 저는 보고 이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업무내용을 정말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누구를 만나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정공모사업 세 과정은 제가 기억을 하지만, 제가 평가를 해서 다 점수를 매긴 사업들입니다만 위원님께 제가 기억을 못하고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羅鍾文 委員; 그리고 지원사업 중에는 여성정보화 촉진사업이 서울YMCA, 한국부인회 서울시지부에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럼요.

○羅鍾文 委員; 동일한 사업을 2개 단체에서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뭔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했

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제출하신 자료만 보고는 분간이 안 되거든요. 차별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왜 똑같은 사업을 2개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왜 YMCA하고 한국부인회가 정보화 사업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한 단체가 2개의 비슷한 것을 하느냐고.....

○羅鍾文 委員; 동일한 사업을 서울YMCA에서도 하고 한국부인회 서울시지부에서도 하도록 해 놓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여성정보화 촉진사업은 중점 지원사업으로 좀더 프로포절 낸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점사업이 금년도입니다.

YWCA하고, 한국부인회, 한국여학사회 이런 데는 일하는 여성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勞動部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받아서 다른 대상으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운영하는 쪽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여성정보화쪽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시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 개선·보완한 내용을 다양한 여성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쪽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羅鍾文 委員; 좋습니다. 서울YMCA하고 한국부인회 서울시 지부에서 하고 있는.....

○女性政策官 盧美惠; YWCA.

○羅鍾文 委員; YMCA가 아니고 YWCA인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YWCA입니다.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YMCA가 아니고 YWCA가 되겠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런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羅鍾文 委員; 그렇네요, YWCA네요. 그 차이가 뭐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羅鍾文 委員;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YWCA의 경우에는 冠岳地域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촉진 여성지도자 교육을 하게 하고, 한국부인회의 경우에는 컴맹탈출쪽의 정보화입니다.

말이 비슷 비슷하기야 하지만,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YWCA는 미취업 여성실업자 취업 정보화교육.

○羅鍾文 委員; 사업을 보면 일회용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고, 거의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리고 女性政策官室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 여성정책 분야가 저혜택층 여성에

서부터 삶을 질 향상, 복지증진, 평등 이것이 백화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공모사업을 별도로 둔 것은 백화점식의 취약한 여성단체, 저도 여성단체를 압니다만, 이렇게 취약하지만 일어서려고 하고 조직을 배우려고 하는 단체를 활성화 하는 쪽에서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금만 지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이 가는 것이고,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것은 저희가 여성단체뿐 아니라 모든 단체에 오픈해서 지정공모사업을 세 가지 했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여성장애인, 가출청소년문제 또 하나는, 세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그쪽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 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정책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 매매춘 관련한, 가출청소년들의 매춘 쪽의 영상물 제작하는 것 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羅鍾文 委員; 담당사업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정보통신 관련사업만 해도 몇 개가 현재 선정돼 있는 줄 아십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10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정보화쪽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羅鍾文 委員; 정보화 쪽만 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정보화 쪽은 많이 할 수록 더 필요하죠. 정보화쪽은 수를 늘리고 더 많이 하고 해야 돼요.

○羅鍾文 委員; 정보화사업도 정말 전문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다 찢어받기지 마시고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

겠다는 의견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과후 교실 활성화정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148개가 시설돼 있는 것으로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4,952명이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는 3,420명입니다.

이것은 대략 1개 시설당 평균 정원은 얼마가 돼죠? 대략 33명이 됩니다, 1개 시설당 정원이.

○女性政策官 盧美惠; 정원이 15명에서 30명까지 한 교사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羅鍾文 委員; 15명에서 30명까지인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30명이 되면 두 사람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29명까지.

○羅鍾文 委員; 1개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33명뿐 된다는 말입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반이 더 있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니까 2개 반 있는 시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맞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나 정원은 3,420명으로 미달 학생수가 몇 명인 줄 압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평균이 70%.....

○羅鍾文 委員; 총 정원으로 보십시오.

○女性政策官 盧美惠; 정원대비 현원이 69.1%입니다.

○羅鍾文 委員; 무려 1,532명입니다. 1,532명이라고요. 정원 미달이 1,532명이라는 것입니다.

1,532명이면 몇 개의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50개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없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물론이죠,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지금 30명, 29명까지를 한 반으로 하고 있는데 한 교사가 6시간 동안 30명을 실질적으로 보기는 참 힘듭니다. 1, 2, 3학년.

그런데 15명에서부터 29명까지 저희가 한 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30명부터는 두 교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羅鍾文 委員;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기존시설로 1,5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맥이 되겠습니다.

지금 70% 수준으로 수용 이용률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올리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바꾸는 쪽에 지원이.....

○羅鍾文 委員; 그러면 정원규정을 낮추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것이 아니라 이용률을 높이는 데.....

○羅鍾文 委員; 왜 70%를 맞추십니까, 100%로 맞추실 목표를 세우셔야지.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현재 70%니까 그것을 한 90% 올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올리려고 하는 저희 정책방향인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羅鍾文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설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시설에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

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1,500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거의 놀리다시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정원 100%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 온 것이 뭐가 있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방과후 교실의 문제점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본 것 중에서 수요자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동이나, 아동이 우선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좋아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현장에 가 보니까 잘 하는 데하고 못 하는 데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사가 15명에서 29명 정도 운영하기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하루에 일당 5시간 내지 6시간 만원씩 지원하는 지원비를 우선 25만원을 책정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작년엔 7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교사 1인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103만원으로. 한 교실당 128만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한 58%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羅鍾文 委員; 자꾸 돈 쓸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닙니다. 또 하나는 컴퓨터를 반당 5대까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이유는 30명을 맥시멈으로 봤을 때 6시간이면 하루에 3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30시간에 컴퓨터 5대면 아이들이 한시간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5대까지 시설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지원을 하자 했습니다.

○李康珍 委員; 질문의 핵심을 파악을 하세요. 그냥 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羅鍾文委員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전원이 1,197명인데 왜 현원은 818명이나 나머지 300명 가량은 왜 비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뭘 컴퓨터를 지원했니, 교사를 지원했니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갔을 때 현장에서 문제점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李康珍 委員;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안 좋은 프로그램도 있다, 좋은 프로그램 더 활성화시키고 안 좋은 프로그램 폐지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답변하셔야지, 지금 보세요.

초등학교 시설개소 36이죠, 정원은 1,197명이죠, 현원은 818명이죠, 그러면 약 300명이 비어요. 그러면 시설당 10명씩 정원이 비잖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 평균도 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李康珍 委員; 참 답답하시네.

○羅鍾文 委員; 정책관님, 올해도 시설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수요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시설 설치하는 것 지원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설을 늘리고 다른 하나

는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羅鍾文 委員; 그런데 지금처럼 70%도 안 된 그런 이용률을 가지고 현재 기존시설도 활성화 못 시키면서 새로운 시설들을 해서 100% 가까이 이용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100%는 아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래서 저는 내실을 좀 더 기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부터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그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委員長代理 金星煥; 羅鍾文委員님, 崔明玉委員님이 그와 관련하여 보충발언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崔明玉 委員; 진행과 관련하여 5분쯤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星煥; 羅鍾文委員님 마저 질의하시고 정회할까요?

○崔明玉 委員; 그렇시다.

○羅鍾文 委員; 그러시면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교실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교실의 운영실적과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저조한 교실의 운영실적과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또 지금 이용률이 낮은 것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대책까지도 또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문제점과 대책까지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작년도 저희가 활성화방안으로 준비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활성화방안으로 준비한 자료가 아니고,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여기 시의회에서 女性政策官님이 우리 女性政策官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자리가 아니고 감사의 자리예요, 감사의 자리.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럼 이런 자료를 제출하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자리예요.

활성화방안을 위한 자료가 아니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라니까요.

○委員長代理 金星煥; 崔明玉委員께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는데요 동료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36分 監查中止)

(18時 41分 監查繼續)

○委員長代理 金星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盧美惠 政策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盧美惠 政策官이 오신 지가 벌써 1년 반이 좀 넘었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委員長代理 金星煥;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에 비해서 女性政

策官所管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집행해 나가시는 데 여러 가지 면에서 소소한 내용까지 파악하시는 데 아주 수고가 많으신 걸 오늘 답변과정에서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질의가 다 끝나기도 전에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질의내용과 관계없는, 혹은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기도 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위원들의 질의가 다 끝나고, 그리고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康珍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康珍 委員; 조금 전에 우리 羅鍾文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방과후 교실 활성화 문제인데 지금 방과후 교실 활성화와 관련해서 敎育廳과 서울시 女性政策官室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99년도 1월,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드릴 때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부설 방과후 어린이교실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을 저희가 敎育廳으로 보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기만 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방과후 교실을 설치해서,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진 않았지만 주로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의 운영형태가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 주고, 어머니들이 퇴근할 때까지 학생들을 돌봐 주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컴퓨터

구입을 많이 했는데, 주로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방과후 특활교실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컴퓨터를 또 배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도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이제는 취업여성들을 위한 교실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특활, 취미 활성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 퇴근시간까지 학생들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아까 羅鍾文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서울시에서 방과후 교실 활성화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이런 곳에다가 지원을 하고 시설을 짓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저는 그것은 서울시에 있다고 보진 않아요, 학교에 있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99년 1월에 한 번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할 테니까 교실 빌려달라, 제가 안 봐도 그 정도 수준일 텐데, 교실 빌려주면 우리가 교사 인건비 해서 하겠다, 학생들 수요 파악해 달라 그 정도일 텐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꼭 그 부분만 예를 든 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2000년도 1/4분기 여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때 주요주제를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으로 해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3월 29일에?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李康珍 委員; 여기에도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선도·재활대책은 예방차원에서 관련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나 본 계획에서 教育部와 教育廳이 빠져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거든요.

지금 女性政策官室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女性政策官室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李康珍 委員; 이것은 사회적·보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제들을 여성으로 특화시키고 아동으로 특화시켰을 때 女性政策官室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다른 사회기관, 다른 공공기관, 다른 민간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제일 우선의 과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남녀평등의식이다, 女性政策官室에서 어떻게 남녀평등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 30명,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가정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져 있는 여성을 상대로 남녀는 평등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남녀가 평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흘러가 주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회의록에 보니까 또 그런 내용들이, 작년 4/4분기 회의인가 회의록에 보니까 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성, 여성 하지만 실제로 다 모아서 하는 교육,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이제는 정말 가정으로 찾아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오늘의 업무보고서 어디에 봐도 없거든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그 대책이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대책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여성발전센터 조례를 보시게 될 텐데요. 여성발전센터 이용자들을 여성들하고 추가로 가족단위로 할 수도 있고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때도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왜 남녀평등의식 고취를 하는데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들만 모아놓고 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서울시 女性政策官室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 영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페미니스트적인 영화를 각 직장에 가서 무료상영을 해 준다는지.....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이번에 합니다, 여성주간에.

○李康珍 委員; 여성주간이 아니지요. 여성이 1년 365일 늘 여성이지 여성주간에만 여성인가요? 그런 식의 계획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 질문의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여성발전센터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남부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참여하는 사람을 늘리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교육내용을 바꾸고, 중부는 중부대로, 북부는 북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불과해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는 남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4개 권역에 여성발전센터를 하나씩 뒀을 때는 정말 지역에서 민간의 여성교육기관이 됐든, 직업훈련기관이 됐든 그런 기관들과 연계를 하면서 市에서 하기 때문에 중심기능으로서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남부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민간기관으로 여성정책이 확산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들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남부여성발전센터의 주요기능은 市에서 하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요금이 싸다, 그 다음에 저소득 여성들에게는 무료로 한다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요. 도대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여성 교육기관이든, 여성 직업훈련기관이든, 한때 IMF때 勞働部에서 인정한 여성 직업훈련기관들 많았잖아요.

그런 기관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냐.

그런 기능들을 서울시 女性政策官室에서 자료 다 가져와라, 區廳을 통해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부여성발전센터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중부는 중부를 중심으로, 북부는 북부를 중심으로, 서부는 서부를 중심으로 그

런 기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 가지고 돈 싸게 내고 교육 듣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기능이 아니고.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것을 지금 저희가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운영개선협의회를 5·6월에 해서 개선을 하려고.....

○李康珍 委員; 보세요. 저는 政策官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女性政策官室의 비중이 커지고 서울시 전체, 여기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있어서도 약 5% 정도를 증대시키고 이런 노력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변화들 저는 인정한다고요.

다양한 변화들은 인정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굳이 盧美惠 女性政策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도 시대추이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은.

저는 보다 근본적인, 정말 우리 나라 서울시에서 女性政策官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성정책을 개발하라고 두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라고 두고 있는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시켜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여성정책을 개발하라고 놔둔 거예요.

그러면 남녀평등의식, 4대 과제 이렇게 죽 있잖아요, 女性政策官室에? 그런 것 있잖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李康珍 委員; 분야별 이래 가지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이렇다면 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해서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남자와 같이 와서 교육을 듣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예요.

남녀평등의 촉진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려면 그 남성들의 의식수준의 변화,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남성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남성들은 주로 여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계층별로, 세대별로, 또 직장의 소재지별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애를 키우는 여성들은 남녀평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직장생활을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 6·25를 경험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대별·계층별·소득별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그런 프로그램은 민간이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그런 계획들을 女性政策官室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점은 있어요. 女性政策官室에 지금 업무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여성의 문제 뿐만 아니고, 아동의 문제, 가정문제가 다 지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것은 인정해요.

兒童福祉팀에 직원이 3명,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아동시설을 다 체크를 하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아동시설을 체크를 못하면 민간인, 그 아동시설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로부터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안 돼요? 공무원이 직접 가서 꼭 감시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런 방안을 저희도.....

○李康珍 委員; 지금 보세요.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가 신문에 계속 보도되니까 요즘 웬만한 직장여성들은 직장에서 조금만 상사가 성희롱에 가까운 언동을 해도 신고하잖아요. 그것이 달라진 것이잖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 의식의 전환을, 언론에서 하기 전에 서울에서 먼저 준비를 해서 언론에도 부탁하고 보도도 하고 해 주어야지 의식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몇 사람 얹혀 놓고 유명한 강사 불러서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여성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수녀님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들은 시설이 미인가인데 미인가를 고수하는 이유는 시설중심이 고객중심이 되어야 하며 시설기준이나 시설장의 자격, 회계절차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보호아동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데 3주나 소요된다, 아동은 당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3주 후에 보호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정하는 것, 이런 분들의 의견이 생활현장에 살아 있는 의견이거든요.

그랬더니 康泓彬 委員長이 그랬어요. 이번 기회에 미인가 시설의 신고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정개혁단과 함께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3월 29일인데 이것 지금 수행했나요, 결과가 나와 있나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 부분 지금 BPR 하는 작업 중의 하나로 계획안에 그때 해서 지금 진행중에는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보세요. 이 수녀님 말씀대로 하면 요 보호아동이 와서 판정 받는 데 3주가 소요되면 지금 아동이 보호받으려고 하면 3주간 계속 딜레이가 돼요.

그러면 이런 미인가 시설을 신고해서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미인가 시설도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미인가 시설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절차가 간소화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해져 있다고요, 뭐예요 그런 것이?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수녀님을 모셔온 것이 그런 문제를 여기 제기하게 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李康珍 委員; 미인가 시설의 신고절차 간소화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선도보호시설, 가출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종합대책에 그런 간소화되어야 되는 부분, 문제점, 현황,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다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간소화가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느냐는 것이라니까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옛날에는 복잡했는데 이제는 정말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까라든지 무슨 구체적인 것을 묻고 있잖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우리 팀장 나와서 그와 관련해서.....

○李康珍 委員;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돼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아직 추진 중이라면.....

○女性政策官 盧美惠; 추진중이었습니다.

○李康珍 委員; 3월 29일부터 지금 근 세 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추진중이면 이것도 한참 가잖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에요. 미인가 시설이 아직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시다. 안 왔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안 하려고 하나 말씀하시면 또 답변할 말이 없습시다만 그 문제 점과 개선안과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저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텐데 민선시장 2기 체제 高建 市長께서 사회의 전문분야에서 盧美惠 女性政策官 님을 특채를 하셨을 때는 그만한 임무와 역할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의 공무원에서 발탁해서 할 때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 뭔가 다른 일들을 하셨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하셨을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관료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康泓彬 委員長이 그래도 여성위원회 위원장이고 서울시 行政1副市長인데 이번 기회에 미인가 시설의 신고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정개혁단과 함께 수행해야겠다 이것은 바로 지시사항이잖아요. 해야 할 것이다 지시사항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체에서 이런 회의를 해서 임원회의를 해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고쳐라 아마 바로 그 다음날 결재 올라갔을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것은 맞습시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미인가 시설의 신고시 절차 간소화를 하는 그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 되겠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절차가 복잡한 것보다 BPR 작업을 하는 계획에 또 그쪽에서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BPR의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李康珍 委員; BPR이 뭐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인가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시정개혁단이 그렇게 불리나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에요. 시정개혁단에서 업무재설계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미인가 시설에 신고하는 것이 업무조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절차상 미인가 시설이 아니라 인가시설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미인가를 고수하겠단 이런 부분이거든요.

○李康珍 委員; 지금 女性政策官님이 느끼실 때 업무를 해 보시면서 한계도 많이 느끼시고 관료조직 속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치시는 점도 많을 텐데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정말로 제 충심에서 우리나라는 말씀은 女性政策官室의 활성화가 바로 서울시 여성정책의 창조적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女性政策官室의 활성화, 업무에 치이는 女性政策官室이 아니고 건물 짓고 돈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돈 체크하고 그런 업무에 치이는, 서류작업하고 이런 데 치이는 女性政策官室이 아니고 정말 정책을 만들 수 있는 女性政策官室이 되려면 女性政策官室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가 볼 때는.

○女性政策官 盧美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李康珍 委員;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 나름대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드려도 될 수 있는지 여쭙보는 것입니다.

○李康珍 委員; 해 보세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정책개발 부분하고 업무수행 부분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정책개발 그 부분은 우리가 취약합니다, 그 부분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본 것은 정책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것이 투명해지고 향상된다면 그것은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육시설에 지금 12만명 아동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책이나 체계나 이것 개선이 되면 또 투명하게 되고 프로세서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정교화 되어서 운영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의 투자도 많이 하고 이것도 굉장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서비스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 개선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정책개발도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몰랐던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의지를 갖고 이 부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보자 하는 쪽으로 저는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부분은 그것은 또 기대가 너무 크신 것 같고요.

정책개발 부분은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정책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도입하는 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것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저희도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간이 걸립니다만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女性政策官室 팀에 만족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 자부심을 여쭙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보세요.

女性開發擔當官室의 팀별 업무내용을 보면 정책기획팀, 능력개발팀, 단체지원팀, 가족복지팀, 보육팀, 아동복지팀, 여성복지팀 이렇게 죽 있잖아요. 이 각 팀별로 인원이 불과 너댓명 정도될 것 아닙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3명에서 5명입니다.

○李康珍 委員; 3명에서 5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팀별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제가 안봐도 여기도 잘 나와 있지만 어디서 요구하는 것, 업무 연락하는 것, 돈 나눠주고 다시 받고 이런 업무에 굉장히 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업무들을 여기서 못하니까 그러면 여성위원회도 설치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전혀 영터리로 제출하기는 했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문도 듣고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또 정책에 반영도 하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女性開發擔當官室에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정책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것을 다 한군데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에요. 자기완결구조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女性開發擔當官室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업무는 예를 들어

서 서울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 여성의 복지증진, 남녀평등의 촉진이다라고 계획을 잡으면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업들을, 주체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과감하게 떼줄 것은 떼주고, 민간에서 할 것은 민간에서 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우선 하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女性政策官室에 보육이나 아동복지팀을 붙여 놓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성의 문제는 보육의 문제, 아동복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뭘 해야 뭘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직장 여성이든 가정의 주부든 여성이 교육을 받든 어떻게 하든간에 뭘 해야 뭘 수가 없는 관계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보육이나 아동복지도 가능하면 女性政策官室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방과후 교실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차라리 지원해서 초등학교에서는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다른 의견도 들어보시겠는지요.

○李康珍 委員; 제가 생각하는 것은.....

○女性政策官 盧美惠; 초등학교가 잘 될 수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제일 안 되는 데가 초등학교예요.

○李康珍 委員;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러니까 돈을 늘리는 것입니다. 왜, 뭐 했느냐 하셨죠? 그런데.....

○李康珍 委員;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초등학교로 쥐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런데요, 초등학교에서 많은 수가 위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 가지고 위탁체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교실에 우리가.....

○李康珍 委員; 초등학교에 지금 방과후 교실 다 하고 있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런데 최근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나갔을 당시에는.....

○李康珍 委員; 99년 1월 이후에 업무연락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고 계시나 본데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요,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도 권했어요.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방과후를 활성화시키니까 방법으로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학교로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까지, 이렇게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李康珍 委員;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작년 1월에 한번 방과후 교실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공문 보낸 것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판단하시지 마세요.

그것이 안 되면 市長과 敎育監이 참석하는 회의도 있고, 의회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문 하나 보내놓고 안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돈 주고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안 해요.

○李康珍 委員; 돈 주고 운영하는, 위탁을 맡기는 자체가 女性政策官室에서, 왜 자꾸 자기들이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제3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李康珍 委員; 왜 위탁을 주는 자체를 女性政策官室에서 주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위탁 주지 않습니다. 구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李康珍 委員; 구는 어디를 통해서 나가요? 구청에 돈 줄 때는 어디를 통해서 나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구청으로 지원을 합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왜 자꾸 엉터리 이야기를 하세요? 돈이 나가는 근원은 女性政策官室에 있는 것 아니에요. 女性政策官室 예산 아니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러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뭔지 저는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만 제가 판단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李康珍 委員;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하는 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왜 女性政策官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教育廳으로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까?

○李康珍 委員; 시 예산에서 편성해서 시에서 教育廳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업무가 잘 돼서 서울시의 방과후 교실 활성화정책이 教育廳에서 좋다 우리가 하겠다, 예산만 편성되면 하겠

다라고 하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노력 안 해 보셨잖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이 제일 운영이 잘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李康珍 委員; 답답하시네.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래서 그쪽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李康珍 委員;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女性開發擔當官室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女性開發擔當官室에서 하는 일의 정책수립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되고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보세요, 李禮子委員님 질문하시니까 그것은 障礙人福祉課에서 온 자료인데요, 障礙人福祉課에서 자료를 쫓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여성은 여성 아니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李康珍 委員; 저희 자료든 아니든 행정감사 자료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 女性政策官님이 안 훑어보세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봤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는 줄 알아요?

자기의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와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아 이런 일이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여성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닌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숙지 안 한 것이 아니라.....

○李康珍 委員; 제가 물어볼게요. 장애여성의 문제가 장애인의 문제예요, 여성의 문제예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여성의 문제입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하세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한 그 내용은 障礙人福祉課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女性政策官님은 서울시의 정책회의도 안 나가시고 실·국장 회의도 안 나가세요?

障礙人福祉課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나는 잘 몰라,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여성에 관련된 문제라도 나는 잘 몰라.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쉼터도 그쪽 예산에서 잘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따시도록 하시오 하고 저희가 정보도 드리고 프로포절도 다 갖다드리고 중간에서 합니다.

○李康珍 委員; 장애여성의 문제를 障礙人福祉課에서 하더라도 女性政策官室로 협조전도 오고 다 하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협조전이 와서가 아니라 저희 자체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것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시도록 노력하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星煥; 잠깐만요. 女性政策官님, 李康珍委員님 하고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아주 날카롭게 하고 계신데요.

일관되게 李康珍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엔 女性政策官이 보다 포괄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실무일에 너무 치이지 말고 포괄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무적인 일들은 아웃소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하시는 바람에 얘기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라거나 이런 취지로 李康珍委員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서울여성의제 21에 나왔던 정책적 계획이나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그것을 실제로 사업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현재 세워놓은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에너지를 많이 쏟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양하거나, 혹은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하시라 이런 얘기여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겠다,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지금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李康珍委員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女性政策官께서는 제가 보기엔 반박하시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해 오셨던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조해서서 업무수행을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珍委員님께서 마저 좀 정리해 주시고 마쳐 주십시오.

○李康珍 委員; 제가 정리를 하면서요.

제 말 대신에 女性政策官님에게나 여기에 참석하신 女性政策官室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 말보다 훨씬 권위 있게 여기실 行政1副市長의 결론을 제 결론으로 삼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책구상시 원자화를 지양해라. 여성, 여성을 외치다 보면 오히려 가족개념이 사라진다. 현재의 여성시책이 청소년 보호, 불우여성 등 제각각 원자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원자화의 원인은 가정의 와해, 가족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市の 향후 정책구상시 원자화를 지양하고 가정이라는 큰 테두리안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라.

다음에 새천년을 전환의 계기로 삼아 500만 서울여성을 모델라이즈 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밀레니엄 컬러와 21세기 여성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미 副市長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네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아동시설에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게 女性政策官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소외된 여성, 정말 가정에서조차 폭력 당하는 여성, 이런 여성들이 폭력 당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 애를 보육시설에 보내 놓으면 선생님이 최고인지 알고, 그런 보육시설에서 원장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자꾸

만들어 주고, 여성들을 자꾸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女性政策官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그것을 숫자가 적은 인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듭니다.

이런 것에 저는 방법을 달리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委員長代理 金星煥; 다음 崔明玉委員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崔明玉 委員; 방과후 교실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지요.

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념 자체가 아동보육이나 아동교육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풍기는 이미지 자체는 좀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보면 방과후 아동보육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육문제거든요. 보육 이전에 교육문제이고, 교육이나 보육이나 별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女性政策官님께서는 女性政策官室하고 教育廳하고 볼 때 전문성이 어디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교육의 전문성은 教育廳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崔明玉 委員;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구조조정을 한다, 행정개혁을 한다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고비용 저효율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모순들을 제거해 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전문성은 정말 제고돼야 될 것이다, 그 전문성이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의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지금 우리 女性政策官室에서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설치비 지원과 예산지원과 지도감독을.....

○崔明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간접적인 지원이고, 간접적인 지도고 관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崔明玉 委員;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방과후 교실과 관련해서?

○女性政策官 盧美惠; 전체 예산이 지금 설치비가 4억 5,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고요. 컴퓨터 구입비가 1억 7,900만원이고, 125개 반에 128만원씩 월 지원이 되니까.....

○崔明玉 委員;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게 없어요, 방과후 교실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

○女性政策官 盧美惠; 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네요.

수도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인구가 천백만입니다. 그런데 약 10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뭔가 취업여성의 아동들을 책임지겠다. 그것이 한 7만 8,000명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10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7만 8,000명의.....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닙니다. 지금 3,420명 지원입니다.

○崔明玉 委員; 그래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崔明玉 委員; 지금 취업여성의 저학년 아동이 약 7만 8,000명으로 예상이 되는구만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숫자는 3,420명 정도 된다 이런 뜻이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러니까 몇 %인지 대충 아시지요? 7만 8,000명에 비하면 3,420명은 아주 적은 숫자이기도 하지요, 예산이 적기도 하지만. 바로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말이지요.

저는 이 뜻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女性政策官室에서 어머니, 女性政策官室 이렇게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뜻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아까 오히려 예산을 教育廳에다 주어서 教育廳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재정과는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점이 서울시 교육재정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한 7,000억원 가까운 빚을 얻어서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화장실을 짓다가 만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급식시설에 기름을 때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빨래가 다 지저분해진다고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教育廳에다가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서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의 료계통으로 말하자면 일반 진료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 아과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시겠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崔明玉 委員;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깜짝 놀란 것이 방과후 보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보육교사 수급방안을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느냐면,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뿐만 아니라 중등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보육교사로 쓰겠다 이렇게 해 놓 았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 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 어서는 적어도 프로그램이나 시설 설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방과후 아동보육쪽에다가 투입하는 문제는 이것은 위험천만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과, 내과, 일반 진료과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아과를 별도로 둔다, 산부인과를 별도로 둔 다 하는 문제는 전문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盧美惠 政策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통 유치원교사를 포함해서 보육교사들은 언어라든지, 문자 를 대신해서 상당히 표현 자체를 구체화시키고, 또 현상화시 키고, 그것을 동작화시키고, 그래서 노작활동을 중심으로 해 서 보육을 해 나가요.

그런데 중등교사를 여기에다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

들은 좀 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하 시려고 하는 의도는 좋고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높이 사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전문성의 결여에서 오는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女性政策官 盧美惠;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星煥; 崔明玉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海植委員長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植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 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서울市에 윤락여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 市 女性政策官室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는지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한 7만명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관련 보고하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 중에 좀 놀라운 사실이 약 46% 정도가 미성년자라는 것이지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통계수치속에는 일반적으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렇게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치가 아니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윤락화 하는 비율을 잡아서 그렇게 통계를 낸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

성들의 숫자는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수치도 나와 있는 것입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46%는 경찰에서 단속한 단속대상에서 단속이 된 사람 가운데 46%가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李海植 委員; 그러니까요, 그것은 대체로 전체적인 비율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6%라는 것이?

○女性政策官 盧美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海植 委員;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일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파악이 돼 있느냐는 것이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여성을 각 업소 수에, 평균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수와 거기에서 매춘 가능한 비율을.....

○李海植 委員;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7만명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5만명 정도다 이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뒤늦게나마 그것을.....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李海植 委員; 전체 구별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됐지만 그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업소에서 일하는, 미아리 텍사스 같은 그런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이외에도 특히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 전화방을 이용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윤락행위로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숫자들 감안하면 성매매에 관련된 청소년 숫자는 더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만명 정도의 46%라고 하면 전체 매춘여성의 반 정도가 청소년이다, 그것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렇게 보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주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보니까 선도재활센터 운영하고 그룹홈 운영하고 그에 관련된 장비구입, 임차비 그리고 홍보책자 발간하는 비용 이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던 말이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왜 女性政策官室에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일종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만 해야 되는지, 예컨대 완전히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 재활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 업무 자체를, 물론 이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통계수치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전에 차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것이 우리 女性政策官室 뿐만 아니라 靑少年課에서 그런 것들 주로 담당을 하고 女性政策官室에서 담당하는 것은 선도재활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정도의 대처를 할 곳이 아니다, 女性政策官室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용역같은 것을 준다면 예컨대 이것도 일종의 수요공급체제 아니겠습니까? 계속 재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 테고, 그러면 그런 재생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법규의 강화 이런 것만 가지고 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靑少年의性保護에 관한法律 그것이 최근에 제정이 되어서 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역이 3년이고 벌금이 2,000만원인가 그렇고 게다가 그런 식으로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언론에다 이름을 공개해서 아예 사회적 매장수준으로 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법이 아마 올초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을 텐데 지금.....

○女性政策官 盧美惠; 7월 13일부터.

○李海植 委員; 7월부터 시행됩니까? 제정된 것은 올해초죠? 시행은 7월 1일부터 되는데, 그러면 지금 6월 정도에 조사한 통계가 반 정도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약 매대춘 행위를 하는 사람의 반 정도가 그런 엄청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라는 것이죠.

현실은 이런데 법규만 강화해 놓고 대책 없이 앉아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여성단체라든지 무슨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겨둘 것이냐 내지는 무슨 여론에다 여론조성이 라든지 이런 것들에만 맡겨둘 것이냐.

저는 적어도 우리 서울시 女性政策官室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마땅히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물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컨대 고등학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지, 또는 그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지, 또는 敎育廳과의 어떤 연계 속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지, 무슨 업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한다든지 등등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예산과 서울시의 인력규모에 비교해서, 대비해서 실천 가능한 부분들로서 이런 청소년의 매매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본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통계를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법규는 법규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강하게 단속을 하되 실제로 원천적으로 그런 재생산구조를 꺾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시女性政策官室에서 지금 운영하는 있는 것이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위탁을 줬습니까,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삼성복지재단하고 보육시설연합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보육시설연합회.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李海植 委員; 거기 시설장하고 보육지도원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일 텐데 그러면 위탁관계 서류하고 인력현황 있죠? 센터장하고 보육지도원, 그 다음에 강사입니까, 그리고 상담원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이것이 孺幼兒保育法이 만들어지면서 보육 정보센터를 만들게 한 것 같죠? 그래서 孺幼兒保育法이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면서 지금도 孺幼兒保育法을 제가 보니까 보육정보

센터에 관한 규정은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이런 것들은 법
대로 실시를 하되 개별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잘 취득할
수 없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자치구 단위에서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거든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있죠.

○李海植 委員; 몇 개가 있죠, 몇 개.

○女性政策官 盧美惠; 두 군데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두 군데 있죠? 그래서 아마 일선 자치구의 어
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거기 활용을 잘 못할 거예요, 일반인들
은 물론이고. 거리가 멀다든지 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어떻
게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육정보센터 운영한다는 그 취지 자체는
물론 좋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활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았고,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못하고
있다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육조례 지난번에 전산망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
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들어가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단 말
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실질적으로 보육
정보센터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홈페이지의 구축과 운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육아를 맡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교
사들, 어린이집에서 다 이용을 할 텐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
리고 싶은 것이 지금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라기 보다 초
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 그리고 PC공급 이

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보육조례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던 말이죠. 그러면 민간시설이 상당히 수가 많죠, 얼마 정도 돼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전부 합쳐 4,040여개입니다, 국·공립 다 포함해서.

○李海植 委員; 지금 학교에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올해 내로 다 하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비추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역시 보육도 孺幼兒保育法 취지에 따라서 보육은 이미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다 그래서 보육을 담당하는 그런 사설 어린이집이나 사설보육원에 있어서도 그런 정보접근의 편의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 ADSL을 설치해 주되 월 사용료는 알아서 낸다든지 또는 PC를 보급하되 지금 현재 있는 PC를 운영하는 쪽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없는 데는 50%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인터넷망을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예산지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홈페이지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일선 어린이 집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은 추세로 보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 지지만 그래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기능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실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센터 약 40만 건이 접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4일부터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李海植 委員; 저도 얼핏 봤는데 보니까 일반들인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해서 상담까지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 보면 인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답변을 해 줄 전문인력 같은 것도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답변도 재각 재각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이용률을 높여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일선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의 상황 자체는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서 가출청소년들이 약 4만 1,000명 매년 있는데 이 가출청소년들이 쉽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의 정보센터 설치 부분, 지금 현재 가정상담소를 기능을 전환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선은 가출청소년들이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노력을

하는, 설치는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 20% 정도의 가출청소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한 40% 정도로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난번에 여기에서 보고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서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전개화시키고 통계자료니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가출청소년의 40% 수준은 정보에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딸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金星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女性政策官所管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때 얘기가 있었습시다만 이번 추경안에 올라오는 선도·재활 종합정보센터, 그 때 가칭이어서 가칭자를 땔 때 좀 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선도·재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1970년대식인 것 같아서.....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委員長代理 金星煥; 명칭을 청소년들이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女性政策官 以下 關係職員 여러분,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 집

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할 것이며, 건의사항은 즉시 검토하여 가능성 여부와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保健福祉局所管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女性政策官所管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9時 44分 監查終了)

○出席監查委員

李英順 金星煥 吉基演 金成奎
羅鍾文 徐興善 劉俊相 李康珍
李東秦 李禮子 林浩植 崔明玉
許光泰 洪承采 朴柱雄 李海植

○專門委員

尹炳國

○被監查機關參席者

女性政策官

政策官 盧美惠

保育팀장 鄭正順

兒童福祉팀장 宋星憲

南部女性發展센터所長 金龍求

中部女性發展센터所長 鄭惠善